

광주시민 카드 사용액 절반 이상 수도권에 몰렸다

한은, 지난해 신한·하나카드 사용액 분석...2년째 역외소비율 증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수도권 가맹점 비중 광주 52%·전남 49% '최다'

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지역 민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됐다. 광주 지역민들의 카드 소비 절반 이상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소비가 역대 소비를 앞질렀다.

이 같은 내용은 이종현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이 지난 25일 발표한 '코로나19 이후 광주·전남지역 소비행태 변화' 조사연구에 담겼다.

이 과장은 광주·전남 거주자들의 신한카드·하나카드 사용액 비중을 소비지역별로 나눴다.

지난해 1~11월 지역민들의 카드 사용액 가운데 수도권 가맹점에서 쓰인 비중은 광주 51.6%·전남 48.5%로,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각각 6.8%포인트, 4.6%포인트 증가했다.

반면 거주지역 안에서 사용한 비중은 광주 38.9%·전남 39.5%로 2년 전보다 각각 6.1%포인트

3.0%포인트 감소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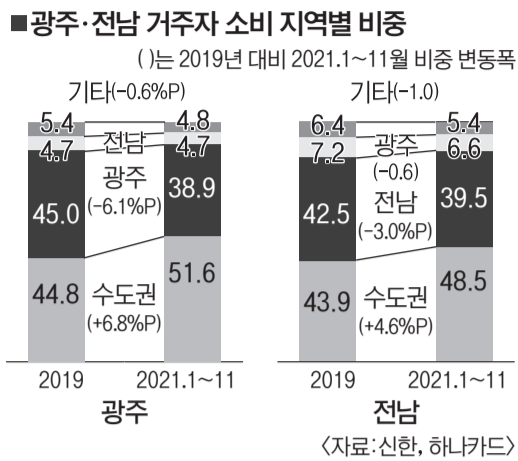
광주의 경우 수도권 사용액 비중은 2019년 44.8%였지만 지난해 51.6%로 늘면서 역외소비 비중(45.0%→38.9%)을 앞질렀다.

광주 거주자의 전남에서의 소비 비중은 4.7%로 2년 전과 같았고, 전남도민의 광주 소비 비중은 6.6%로 소폭(-0.5%포인트) 감소했다.

광주·전남 역외소비율은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증가 추세이며, 지난해 전국 평균 역외소비율(58.7%)을 웃돌았다.

광주 역외소비율은 55.0%(2019년)→58.9%(2020년)→61.1%(지난해 1~11월) 등으로 증가했다.

지난해 광주 역외소비율은 2019년보다 6.1%포인트나 증가했는데, 이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인천(6.7%포인트)에 이어 두 번째로



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.

전남지역도 57.5%→59.3%→60.5%로 늘었다.

이종현 과장은 "광주·전남 두 지역 모두 수도권에서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"며 "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늘어난 온라인 소비가 분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집계되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다.

실제 지난해 1~9월 기준 전국 전자상거래 신용카드 사용액의 99.2%는 서울과 경기지역 가맹지로

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.

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광주·전남 지역민들의 온라인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.

지난 2020년 유통업 부문 온라인 소비는 전년보다 광주 38.6%·전남 44.4% 증가했다.

같은 해 백화점 소비액이 전년보다 광주 6.8%·전남 3.5%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.

지난해 들어 온라인 소비 증가율은 광주 12.7%·전남 14.1%로,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'두 자릿수' 증가율을 기록했다.

한편 지난해 광주·전남 두 지역 모두 역외소비 비중이 60%를 넘었지만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소비 유입률도 코로나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해 1~11월 소비유입률(신한·하나카드 사용액 기준)은 광주 29.7%·전남 28.7%로, 전국 평균 28.5%를 웃돌았다.

두 지역 모두 2년 연속 소비유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 광주는 27.3%(2019년)→27.6%(2020년)→29.7%(2021년) 등으로 늘었고, 전남은 27.6%→28.2%→28.7% 등이었다.

특히 지난해 광주 소비유입률은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, 2019년에 대비한 증가폭(2.4%포인트)도 최대를 기록했다.

이는 자동차 판매와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비유입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한은 측은 풀이했다.

소비유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, 인접한 호남 경제권에서의 소비유입은 축소된 반면 대전·충청권에서의 유입(광주 1.8%포인트·전남 0.3%포인트)이 확대됐다. 수도권에서의 소비유입은 광주는 0.6%포인트 감소(30.9%→30.3%), 전남은 0.8%포인트 증가(34.5%→35.3%)했다.

이 과장은 "온라인 소비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으로의 소비유출이 심화하는 등 소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"며 "현재 지역 공공배달업체에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시장보기 서비스, 식당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고 취급품목도 농수산물과 지역특산물 위주에서 여타 품목을 포괄하는 공유형 어플로 확대하는 등 지역내 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사업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"고 제안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광주 설 선물 1위 건강식품

홈술 문화에 주류 2년새 3단계 ↑ 롯데백화점 내일까지 배송 신청

올해 광주 지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설 명절 선물 1위는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했다.

2위는 축산물이었으며, 와인·위스키를 필두로 한 주류가 3위에 새롭게 자리잡았다.

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설 명절 선물 매출은 건강식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.

2위는 축산, 3위는 주류 상품군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.

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지난 2020년 설 선물 매출 순위는 건강(1위)→축산(2위)→글비(3위)→수산물(4위)→정과(5위) 등 순이었다.

당시 매출 순위 6위였던 주류 상품군은 2년 새 3계단 상승한 3위로 등극했다.

이는 거리두기 강화로 귀성객이 줄면서 집에서 술을 즐기는 '홈술'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아울러 올해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같은 기간 축산 매출은 전년보다 8.3% 증가했다.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고객이 늘면서 홍삼제품 등 건강상품군 매출도 5.2% 증가했다.

한편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8일 정오까지 광주지역 설 선물 배송 신청을 받는다. 광주점은 최근 5년 동안 명절 매출의 20%가 명절 직전 나흘 동안에 몰린 점에 따라 28일까지 배송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2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이 지하 1층 주류 전문 매장에서 설 선물을 살펴보고 있다. <롯데쇼핑 제공>

보해양조, 품격·실속 가득한 설 선물세트 판매

순금 매취순 세트 등 다양

보해양조(대표 임지선)는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.

우선 보해양조는 가장 자신 있게 선보이는 선물세트로 '15년 숙성 매취순'을 꼽았다.

지난 40년 간 매실주를 만들어온 보해양조가 가진 노하우를 발휘한 제품으로, 진한 향과 깊은 맛이 일품이라는 게 보해 측의 설명이다. 해남 청정 지역에서 자란 최상급 청매실을 골라 15년간 숙성해 만든 15년 숙성 매취순은 명절 선물세트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굳혔다.

이밖에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찾는 고객에게는 '매취순 12년 3ℓ' 제품을 추천했다. 투명한 3ℓ 용량의 유리병에 담긴 매취순은 맛이 깊을 뿐더러, 타주류 제품에 비해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 명절선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.

보다 이색적인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에게는 '순



금 매취순 선물세트<사진>를 추천했다. 황금 빛깔 매실주에 식용 금가루를 더한 순금 매취순 제품이다.

제품 구입 문의는 보해양조 고객센터(080-585-3111)로 할 수 있다. 또 주류 구입 스타트폰 어플리케이션 '데일리샷'을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픽업하는 것도 가능하다.

보해양조 관계자는 "보해양조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선물세트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"고 말했다.

/박기용 기자 pboxer@

간편 차례상 인기...광주 이마트 매출 21% 증가

제수음식 매출 80%는 '전'

올 설에도 거리두기 강화로 귀성길이 멀어지면서 간편차례상으로 제수 음식을 대신하는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.

26일 광주지역 3개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간편차례상식 제수 음식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.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수 음식 가운데 간편차례상이 차지하는 비율

은 2019년 8.1%에서 지난해 10.3%로 늘어났다.

간편차례상 매출 가운데 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80%에 달한다.

코로나19 국내 확산 이후 명절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지면서 차례상도 간소화하고 있다.

이마트는 다음달 2일까지 피코크 제수음식 40여종을 2만5000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한다. /백희준 기자 bhj@

<h2>경매교육 [특수전문반]</h2> <p>기초반, 중급반</p>	<h2>상가매매(상무지구)</h2>	<h2>신축원룸매매(신축)</h2>
<p>1) 특수경매전문반 모집(선착순 8명) (유치권 전문, 법지)</p> <p>2) 직업 전문반모집(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)</p> <p>● 기초반, ● 중급반, ● 특수반 (기초부터 ~ 실전 ~ 특수까지)</p>	<p>중심상업지역 6층, 7층 (총분양 140평)</p> <p>시세 -> 9억</p> <p>급매가 -> 5억8천</p> <p>(보 3천, 월 350만, 용 3억5천)</p> <p>(사무실 리모델링함,빠,유층,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)</p>	<p>1개동 원룸 (상가)로 노후대비결(공실없음)</p> <p>● 월수익 750만</p> <p>● 년수익 9000만</p> <p>● 매가 13억5천 (보2천, 용 6억5)</p> <p>★ 4개동(월수익 3000만) =>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(보8천, 용25억)</p>
<p>광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구 화정동(주택) ▶ 감정가 2억5천 -> 최저가 1억7천 (1/21) 서구 쌍촌동(아파트) ▶ 감정가 1억7천 -> 최저가 1억1천 (1/27) 광산구 수완동(근린상가) ▶ 감정가 95억 -> 최저가 66억 (2/3) 북구 용봉동(다가구원룸) ▶ 감정가 8억3천 -> 최저가 2억9천 (2/3) 광산구 수완동(근린상가) ▶ 감정가 8억1천 -> 최저가 5억6천 (2/3) 서구 화정동(근린주택) ▶ 감정가 3억2천 -> 최저가 2억2천 (2/3) <p>전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광양시 성황동(임야) ▶ 감정가 18억 -> 최저가 5억1천 (1/10) 목포시 옥암동(근린시설) ▶ 감정가 25억 -> 최저가 14억 (1/10) 진도군 진도읍(근린시설) ▶ 감정가 32억 -> 최저가 22억 (1/10) 담양군 월산면(임야) ▶ 감정가 9억7천 -> 최저가 3억5천 (1/20) 나주시 빛가람동(근린상가) ▶ 감정가 2억1천 -> 최저가 6천1백 (1/27) 나주시 금천면(주택) ▶ 감정가 4억1천 -> 최저가 2억9천 (2/3) <p>시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남 창원시 의창구(근린상가) ▶ 감정가 40억 -> 13억 (1/13)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(근린시설) ▶ 감정가 64억 -> 최저가 32억 (1/25) 	<h1>010-6670-9800</h1>	